

도처에서 각종 건축이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히 이론의 홍수시대라 할만하다. 편히 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리저리한 건축가들의 아젠다를 읽어야 하고, 그에 대한 비평가들의 해제를 이해해야 하며,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철학자들과 이론가들의 담론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에 그간의 이론을 포집하고 선별한 다수의 선집(選集, anthology)이 출판된 것은 징후적이다. 조안 오크만(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1993), 케이트 네스빗(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1965-1995; 1996), 닐 리치(Rethinking Architecture; 1997), 마이클 헤이즈(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1998) 등을 보라. 그러나 이러한 선집의 출간은 건축이론의 제도화 경향을 띠기도 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만나게 된다. 2천년대 접어들며 대두된 탈비판성(Post-Criticality)은 그러한 반(反)이론의 입장을 지시한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반 이론의 입장 역시 하나의 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건축에 이론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건축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실천 혹은 실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약 필요 없다면, 왜 그러한가? 그러면 수많은 건축 행위는 어떤 논리에 따라 실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론과 실천, 즉 테오리아(theoria)와 프락시스(praxis)를 대비하여 사용하며, 둘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비트루비우스 역시 『건축십서』 서두에서 실무와 이론 두 가지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에게 실무는 주로 육체적인 것과, 이론은 비례원리와 관계 깊다. 그렇다면 현재적 관점에서 이론과 실천/실무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 의존하며 확장될 수 있을까? 실제 현장에서는 지적 유희의 관념적 이론보다 디지털 툴, 법규, 구조, 시공 등에 관한 실용적 이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가? 「건축평단」 2016년 여름호는 건축의 이론과 실천/실무에 관한 건축가와 이론가(역사가/비평가)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건축평단」이 이론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모두가 그러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론과 실천의 진한 관계를 논할 글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무관계성, 혹은 건축실무에서 이론의 무익함을 꼬집을 글 역시 환영한다.

편집위원 김현섭

건축의 이론과 실천

현대 건축, 이론과 실천의 얽힘에 관하여

김현섭

건축에서 ‘이론(theory)’이라는 말과 함께 수반되는 개념들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는 두 가지 범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반대편에 놓인 ‘실천(practice)’, 혹은 ‘실무’라는 개념이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현장에서의 건축행위에 ‘실천’이라는 말보다 더 직접적인 ‘실무’라는 말을 통용하므로 본고는 둘을 등가로 여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일찌감치 이론과 실천이라는 말, 즉 ‘테오리아(θεωρία; theoria)’와 ‘프락시스(πρᾶξις; praxis)’를 대비하여 사용했다.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가 올림포스 경기의 구경꾼을 운동선수와는 다른 (더 높은) 부류로 구분한 것은 그 단초다. 여기서 관람자는 상황을 분석하는 사상가를 의미하는데, ‘구경한다’는 말은 헬라어의 ‘테오리아’가 갖는 뜻 가운데 하나였다.² 구경을

위해서는 경기가 있어야 했고, 경기는 구경을 전제로 했다. 이론과 실천의 관계도 닮아 있다. 어떤 행위나 현상을 추상하면 이론이 발견되며, 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나름의 물이나 관점, 즉 이론에 따라 우리는 실천한다. 건축에서도 다르지 않다. 둘째, 이론-실천의 대립항과는 반대로 건축에서 이론은 대개 ‘역사(history)’ 및 ‘비평(criticism)’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 두고 동반한다. 다시 말해, 보통 ‘역사-이론-비평’을 한 부류로 묶어 큰 범주의 이론으로 여기며 건축실무와 대치시키는 것이다.³ 케이트 네스빗(1996)은 이 세 가지 영역이 크게 겹쳐짐을 인정한 위에, 공통점을 넘어선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전통적인 역사가 어떤 현상의 사실관계에 ‘서술적(descriptive)’이라면, 이론은 ‘규정적이거나, 금지적이거나, 확인적이거나, 비판적인(prescriptive, proscriptive, affirmative, or

- 1 이 논고는 필자가 이전에 출판했던 ‘현대건축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소고’(『건축』, 2013.2)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새뮤얼 이녹 스텝프 & 제임스 피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이광래 옮김, 열린책들, 2012, 30쪽.
- 3 건축에서 역사-이론-비평이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64년 미국 건축가협회와 건축학교연합이 함께 했던 건축교육 세미나에서였다. Marcus Whiffen (ed.), *The History, Theory and Criticism of Architecture: Papers from the 1964 AIA-ACSA Teachers Seminar* (Cambridge MA: MIT Press, 1965). 이 세미나는 얼마 후 MIT에 이른바 ‘HTC(History, Theory and Criticism)’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계기였는데, 유사한 과정이 미국 동부의 여러 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그 배경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생산적 불일치: 건축평단에서 CASE를 돌아봄, 혹은 vice versa’(『건축평단』, 2015년 여름호)를 참조하시오.

critical) 한편, 비평은 평자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과 해석의 한정된 활동'이다.⁴ 그런데 실천과 대비되는 이론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도 다시 실천의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비평은 위 정의에서 이미 '활동(activity)'이라는 적극적 실천임이 자명해졌다. 그리고 역사 역시 '역사 서술(historiography)'이라는 '행위(doing)'와 함께 함을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와 실무의 결탁을 경계하고 비판했던 타푸리의 견해와 결코 배치되지 않는 다른 각도의 구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논의 전개의 편의상, 큰 이론 범주 속의 실천항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비평을 중개념의 역사로 다시 지칭하자. 이러한 열개 하에 이 글은 현대 건축의 실무와 역사라는 실천 영역 가운데 점점 더 지대해지고 있는 이론의 역할을 간략히 개괄해보고자 한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법한 역사의 부분에 대해 먼저 논하도록 하겠다.

이론화 된 역사(Theorised History)

건축역사의 역사가 길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야 건축역사에 이론이 도입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적확하진 않아 보인다. (데이비드 와트킨(1980)이 건축사 서술이 발흥하기

시작한 18세기 이래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양상을 보여줬듯⁴ 각각의 저자들은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예술사학의 방법론에 기반 건축역사서가 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방법론이 의심되기 시작한 것은 아직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았고, 본격적 연구 대상이 된 것도 이제 겨우 한세대가 지났을 뿐이다. 이런 상황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만프레도 타푸리(1935-94)의 『건축의 이론과 역사』(Teoria e storia dell'architettura, 1968/Theories and History of Architecture, 1980)라 하겠는데, 주지하듯 그는 이 책에서 지그프리트 기다온이나 브루노 제비를 위시한 대부분의 건축사가들의 '작동적 비평(critica operativa; operative criticism)'을 비판했다. 여기서 '작동적'이라 함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미리 계획하는 도구적 견해를 뜻한다. 역사의 신화를 벗겨낸 그의 입장은 이후의 저술로도 이어지며 건축 이데올로기 비평의 중요한 시금석이 됐고, 현재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테미트리 포피리오스가 편집한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4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p. 16-17.

5 David Watkin, *The Rise of Architectural History*, London: Architectural Press, 1980.

History』(1981)는 헤겔의 예술사론으로부터 타푸리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16명의 근현대 예술사가와 건축사가의 방법론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고를 한 권으로 묶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⁶ 이제 건축사 자체가 아니라 그 역사의 이론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파나요티스 투르니키오티스(1999)나 안소니 비들러(2008)가 근대건축의 역사서술론을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게 된 것도⁷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역사에 이론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건축역사와 ‘비판이론’이 교차된 ‘비판적 역사’를 강조한 이안 보든과 제인 렌델(2000)은 그 극단의 의견을 들춰내고 있다. (이들은 여기서 ‘비판이론’이라는 개념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을 뛰어넘어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등 모든 ‘자기성찰의 해방적 이론’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역사학, 문화학, 지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이론적 학문분과 역시 포괄하려 한다. 한편, ‘비판적 역사’라는 용어에서 프랑크푸르트학파에 영향을 받은 케네스 프렘프턴을 의식하지만, 그 역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게 한다’는 개념을 노출했음을 지적한다) 1993년의 한 건축사학 컨퍼런스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드보라 하워드가 ‘좋은 역사는 방법론을 필요치 않는다’는 ‘고답적(antiquarian)’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나 가빈 스탬프(Garvin Stamp)가 건축이론 가운데 차용되는

탈구조주의를 ‘부적절한 마스터베이션’으로 치부한 것이 그 예다.⁸ 인접 학문에 비해 다소 고립된 듯 보이는 일반 역사학의 분야에서도 ‘역사가들의 이론 혐오증’은 거세게 반박되곤 했다.⁹ 그러나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성의 권위가 힘을 쓰지 못하며, 도구화 돼 버린 역사의 속성이 노출된 작금의 포스트모던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건축역사의 범주에 성을 쌓고 이론의 침투를 막고자 하는 일은 이미 철지난 역부족의 싸움이 된 것 같다. 헤겔의 말처럼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품고 있다면¹⁰ 역사가의 고상한 작업이야 말해서 무엇 하라. 키스 켄킨스(1991)는 ‘모든 역사는 이론적’이라고 단언한다.¹¹ 그렇다고 역사가들이 모두 최신의 이론으로 주장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역사가가 자신의 이론적

- 6 Demetri Porphyrios (ed), *On the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History* (London: Architectural Design, 1981).
- 7 Panayotis Tournikiotis, *The Historiography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MA: MIT Press, 1999); Anthony Vidler, *Histories of the Immediate Present: Inventing Architectural Modernism* (Cambridge MA: MIT Press, 2008).
- 8 Iain Borden and Jane Rendell, ‘From chamber to transformer: epistemological challenges and tendencies in the intersection of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in Borden and Rendell ed), *InterSections: Architectural Histories and Critical Theories* (London: Routledge, 2000), pp.3-23.
- 9 키스 켄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가인가』, 최용찬 옮김, 해안, 1999, 155쪽.
- 10 G. W. F. Hegel, *Hegel’s Aesthetics: A Critical Exposition*, trans. J. S. Kedney (Chicago: S. C. Griggs and Company, 1885), pp. 163-164.
- 11 키스 켄킨스, 앞의 책, 188쪽.

입장을 파악하고 이것이 사회와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보든과 렌텔의 논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들이 주장하는 ‘비판적이고 이론화 된 건축역사(a critical, theorised architectural history)’는 타푸리의 ‘변증법적 역사’가 지닌 ‘지적 에너지의 강렬함과 역사적 지식의 잠정적 속성’을 공유하면서도,¹² 그의 비판적 견해 대신 넘쳐흐르는 인간의 창조력이 지닌 변혁의 가능성에 여전히 희망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는 비평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론적 실무(Theoretical Practice)

이론화 된 역사의 양상을 먼저 살폈지만 역사가 이론적이라는 말보다 실무가 이론적이라는 말이 더 강한 논점을 제시하는 것 같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 역사-이론 사이의 거리보다 실무-이론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무와 관련한 이론이라면 일차적으로 계획학적 각론이나 법규, 구조, 시공 등 실질적 수준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실무적 이론(practical theory)’이라 칭할 만하다. 그러나 본고가 관심을 두는 것은 물론 이런 측면이 아니며, 초점은 후술할 ‘이론적 실무(theoretical practice)’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보든과 렌텔이 기뻐했던 폭넓은 의미에서의

비판이론임과 동시에, 현대의 '문학이론(literary theory)'이나 '문화이론(cultural theory)'과도 궤를 같이 한다.¹²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문학이론이라는 점, 그리고 문화의 모든 현상을 텍스트로 여기는 현재적 관점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건축이라는 텍스트, 혹은 문화 현상을 해석하고 비평함에 있어 문학이론이나 문화이론이 도입됨은 자연스런 귀결이며, 학제간 넘나듦의 전형적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을 둘러싼 다른 많은 행위들이 모두 텍스트로서 건축담론에 직접 개입하게 된 근래의 경향과 관계 깊다. 그리고 보니, 조나단 헤일(2000)이 지적하듯, 건축 아이디어의 생성 및 전달은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도 오히려 다른

12 프레드릭 제임슨은 타푸리의 『건축과 유토피아』(Progetto e Utopia, 1973)를 '변증법적 역사(dialectic history)'의 드문 예로 규정했으며 그의 지적이고 밀도 높은 글쓰기를 아도르노나 바르트의 것 과 비교하기도 했다. 타푸리에 대한 보든과 렌델의 견해는 제임슨을 참조한 것이다. Fredric Jameson, 'Architecture and the Critique of Ideology', in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riticism Ideology (Princet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5), pp. 51-87[57].

13 이 같은 입장에 비해 라파엘 모네오가 현대 건축가들에 대해 말하는 '이론적 열망(theoretical anxiety)'은 훨씬 솔직하고 실제적이다. "Theoretical anxiety is a more accurate term than theory." Rafael Moneo,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y (Cambridge MA: MIT Press, 2004), p. 2.

14 이런 배경 하에, 마르코 프라스카리가 서술하듯, 건물과 드로잉의 재현 관계가 도취되기도 한다. Jonathan Hale,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 (Chichester: Wiley, 2000), pp. 1-6.

15 현대 건축, 이론과 실천의 얽힘에 관하여 · 김현섭

간접적 미디어(프로젝트 개요, 평론, 역사서술, 시방서, 도면, 책, 강연, 사진, 방송, 대화 등)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장 보드리야르가 걸프전과 관련해 '뉴스 이벤트', 즉 미디어의 역할이 리얼리티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던 것(The Gulf War Did Not Take Place, 2007)도 비근한 예로 여긴다.¹⁴ 근대건축가들의 글을 모아 묶은 올리히 콘라드의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century architecture』(독문본 1964; 영역본 1970)는 건축의 이해를 위해 건물 못지않게 건축가의 글이 중요함을 보인 선구적 문헌이라 하겠으며, 피터 아이젠만 주도의 뉴욕 '건축도시연구소(IAUS,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가 출판한 저널 『Oppositions』(1973-1984)는 당대 첨예한 이론을 생산하고 그 텍스트를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에 이와 같은 텍스트의 중요성이 가중되며 다수의 건축이론 선집(選集, anthology)이 출판된 것은 징후적이다.¹⁵ 그 출발점인 조안 오크만의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1993)는 모더니즘이 포스트모던으로 전이해가는 6,8혁명 이전 사반세기 동안의 다양한 글들을 연대순으로 수록했다. 이 책의 짤막한 서문에서 베르나르 추미는 '이론에 근간한 실무'라는 뜻으로 '이론적 실무'와 '이론적 프로젝트(theoretical project)'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같은 작업은 굳이 실현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남더라도 가치 있는 비판적 프로젝트라 주장했다. 추미에게 있어서 현대의 건축가가 비평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스빗 역시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1996)의 서론에서 지어지지 않은 ‘페이퍼 아키텍처’의 비판적 능력과 연관시켜 ‘이론적 프로젝트’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헤일은 ‘이론적 실무’라는 용어를 『Building Ideas: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Theory』(2000)의 서론 부제로 삼으며 적극 내세웠다.¹⁵ 그가 분명히 했듯, 이론적 실무의 역할은 단지 건물 자체를 더 예쁘거나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담는 사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비판적 건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 실무의 비판이 노리는 직접적인 대상은 건물이기보다 그 사회와 문화다. 이미 오래된 예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지만, 아이젠만의 주택 시리즈가

- 15 1990년대의 것만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Joan Ockman (ed), *Architecture Culture 1943-1968: A Documentary Anthology* (New York: Rizzoli, 1993);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Charles Jencks and Karl Kropf (ed), *Theories and Manifestoe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Chichester: Wiley, 1997); Neil Leach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1997); K. Michael Hays (ed),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Cambridge MA: MIT Press, 1998); K. Michael Hays (ed), *Oppositions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 16 이 책은 학생용 건축이론 입문서로서 지금까지의 건축이론 선집과 여타 문헌들을 컴퓨터별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보여줬던 ‘탈기능주의’와 ‘탈인본주의’의 불편함과 난해함은 기존 문화의 보수성에 균열을 내고 그 틈새의 긍정성을 희망하는 비평 행위인 셈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무에 대한 해석학적 방법론은 대체로 전술한 문학/문화이론의 프레임을 의지한다. 특히 닐 리치의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1997)가 그러한데, 이는 여러 분야의 인문학 텍스트를 모더니즘, 현상학,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로 범주화했다. 헤일 역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에 근거해 몸의 경험을 강조한 현상학, 이미 존재하는 코드의 네트워크에 개인이 놓인다는 구조주의, 사회 속의 보이지 않는 힘을 간파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마르크스주의로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¹⁷ 이 같은 여러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개 비평을 통한 사회 변혁을 암묵적으로 의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마르크스주의적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포함한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이론가들이 현 세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일 테다) 마르크스의 작업은 출발점 자체가 (그간 철학자들이 천착했던) 세계의 해석이 아닌 세계의 변화를 위한 ‘실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을 통한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전술했던 타푸리를 다시 한 번 넘어서야 할 것 같다. 유토피아 없는 ‘순수 건축(pure architecture)’의 자율성에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할지라도 사회 질서의 혁명적 변화

없이 건축의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그의 견해는 전술했듯 비판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에서든 사회에서든, 변화에 대한 희망은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를 떠나 모든 이들의 존재론적 열망이다. 그러한 실존적 지향을 차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겠다. 게다가 그의 논점의 바탕은 이론을 통한 실천, 혹은 이론적 실무가 기대하는 사회의 변화에 오히려 문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대안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좀 진부하지만, 프레드릭 제임슨이 제기한 바 있는 '소진지 이론(enclave theory)'이 거론될 법하며¹⁸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참여와 맞물리는 풀뿌리 건축 실천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가능성의 까닭에 현실 속에서도 이상을 꿈꾸는 건축가들은 아직도 이론을 통한 혁명적 실천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으리라.

17 사실 이 두 연구자와 두 저서는 한동안 영국 노팅엄 대학의 '건축 및 비판이론 석사 융합과정(MA in Architecture and Critical Theory)'에 중추적이었다.

18 Jameson, op cit. 타푸리의 비판론의 대안으로 제임슨이 제안한 이 이론은 '소진지'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 코뮌이 주변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전체를 변혁하는 모델을 지칭한다. 그러나 근대 아방가르드의 실패한 유토피아 프로젝트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론-실천의 얽힘(Theory-Practice Intertwined)

지금까지 현대 건축에서 역사와 실무의 영역이 이론과 교차하는 단면을 나누어 살펴봤지만, 결국 두 카테고리 역시 여러 축에서 얽히고 교차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역사 또한 큰 이론의 범주 내에서 실천 함의를 생각한다면 '이론화 된 역사'도 '이론적 실무', 혹은 '이론적 실천'의 영역으로 포섭됨을 쉬이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글의 첫머리에서 전제한 이론-실천의 구분과 역사-이론-비평의 구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의미해지며, 모두가 사회를 향한 비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론과 실천의 얽힘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 도전을 만날 수 있다. 하나는 이천년대 접어들며 대두된 탈비판성(Post-Criticality) 경향이다. 1960년대부터 부상했고 1990년대 정후적이었던 건축의 이론화가(또한 이론 자체 못지않은 이론의 제도화가) 반작용을 만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 배경에는 비판적 이론과 실무 사이의 괴리,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달 및 변화, 집단적 생산시스템의 부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결국 모두는 자본주의 체제 하의 실용주의 노선과 관계 깊다. 그러나 이러한 반(反) 이론의 입장 역시도 하나의 이론일 수밖에 없으며, 탈비판성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비판성을 견지하면서도 건축의 실험과 혁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축이 자본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비판이 여전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이클 헤이즈는 이론에 대한 반박 자체가 이론의 우세함의 산물이라 말한다.¹⁹ 또 하나의 도전은 이론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 즉 이론이 실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역설적이게도 탈비판 진영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비판적 실무와 관계된 진영에서도 또렷이 발견된다. 타푸리나 아이젠만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론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은 이론과 실천이 얽혀 있다는 주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탈비판을 비판한 헤이즈가 이론과 실천이 독립된 실체라 말할 것은²⁰ 오히려 이론적 실천의 필요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바가 아닐까? 요컨대 이론과 실천의 얽힘에 대한 도전은 모두 둘의 밀착된 관계를 더 도드라지게 해준다.

19 건축의 탈비판성과 관련된 이들과는 '이론의 종말 이후'의 '디자인 인텔리전스'를 내세운 마이클 스피크스나 '핫'한 '비판적' 건축 대신 '쿨'한 '투사적(projective)' 건축을 주장한 로버트 소몰과 사라 와이팅 등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조지 베어드나 레이놀드 마틴 등에게 반박된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을 개괄하는 데에는 크리스타 사이크스(A. Krista Sykes)가 편집한 『Constructing a New Agenda: Architectural Theory 1993-2009』(2010)이 유용하다. 이 선집은 1990년대의 네스빗(1996)과 헤이즈(1998)의 책을 이어받아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보여준 점에서 흥미롭다.

20 A. Krista Sykes, *Constructing a New Agenda: Architectural Theory 1993-2009*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pp. 18-19.

이처럼 현대 건축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논의의 범위가 한국 건축의 현실로 좁혀지면 여태의 이야기는 무력해지기 십상이다. '작동적 비평'이라 비판할 만한 역사와 이론과 비평의 토양조차도 너무 얇기 때문이고, '이론적 실무'를 논하기에는 우리의 실천장이 아직 한참 척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요원한 이야기로 돌리기에는 바깥 동네의 변화가 한가롭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도 케어 널 보화가 적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겐 지난(至難)하지만 기꺼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건축가들보다 역사와 이론의 연구자들을 더 겨누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건축가들은 어찌됐건 건물을 지어오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필자는 '비평가들의 두꺼운 해석과 역사가들의 깊은 글쓰기'를 촉구하곤 했다. 우리네 건축평단이 깊어져야 할 임무일 게다. 고유명사로서의 '건축평단'이든, 일반명사로서의 건축평단이든 말이다.